

주일미사 참례 의무 관련 해제

-2021년 6월 6일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성혈 대축일"부터 팬데믹으로 시작된 주일미사 참례 의무 관련을 해제하며 앞으로 주일미사 참례 의무를 지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주일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며 불필요한 일과 쇼핑을 삼가고 가족/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기도하고 여가/휴식을 통해 시간을 보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단 코로나에 감염되었거나 병원에 입원한 경우 등 코로나 바이러스로 심각한 상황에 처한 사람은 주일미사 참례 의무가 면제됩니다.

교구 팬데믹 본당 규정 해제

-교구내 본당에 적용된 팬데믹 교구 규정이 해제가 됩니다. 따라서 팬데믹 이전의 모습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단 본당별로 지역 상황에 따라 필요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본당에서는 별도의 공지전까지 실내 마스크 착용과 좌석 띄워 앉기는 유지합니다. 그외 교구에서 시행했던 제한은 풀도록 하겠습니다. 성당 내부 소독은 하지 않고 있으니 성당에 들어오실 때 입구에 준비된 손소독제로 개인 위생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성모성월

-5월은 성모성월입니다. 올해는 성모성월을 맞아 주보와 구역/반장님들 통해 공지한 기도 달력에 따라 묵주기도를 바치고자 합니다. 공통지향으로 본당공동체를 위해서 해주시고 가정별로 개별 지향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본당 공동체 전체가 모이는 성모의 밤은 따로 없겠습니다.

-이번 주 주일미사 전 묵주기도 때는 모든 구역이 끝나서 개인적으로 성모상 앞 기도초에 불을 켜시고 지향을 넣어 묵주기도 하겠습니다.

예수 성심 성월

-6월은 예수 성심 성월입니다. 예수 성심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보통 '예수 성심상'에서는 예수님의 심장에 불꽃이 타오르는 형상으로 표현됩니다. 옛 교부들과 신학자들은 예수 성심을 사랑과 은총으로 생각해 심장에서 흘러내린 물이 영혼을 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세례성사를 상징한다고 봤습니다. 또 피는 그리스도와 일치하게 하는 영혼의 양식, 성체성사를 상징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성경에 근거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군사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요한 19,34)는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 성심은 성령과 함께 초자연적인 은총의 근원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성심이란 신체기관인 '심장'만을 따로 떼어놓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감정과 사고, 의지를 맡은 중추기관으로서 그리스도 인격을 총체적으로 일컫는 것입니다. 또 예수 성심은 인간에 대한 끝없는 사랑입니다. 교황 비오 12세는 회칙을 통해 "예수 성심은 하느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사랑의 감정들까지도 나타내고 있다"며 "지극히 거룩하신 성삼위와 구세주 하느님이 모든 인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신비"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예수 성심을 공경하고 묵상하는 신자들은 기도와 희생, 보속으로 예수님의 사랑에 보답할 것을 다짐합니다.

ACTS

-평소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서 절약한 몫은 Archbishop's Call To Share를 통해 가난한 이웃들과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구장 주교님께 일임하실 수 있습니다. ACTS로 하실 경우 Parish 선택란에는 Korean Catholic Community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또는 주일헌금을 통해 봉헌하실 수 있습니다.

낙태반대

-하이드 수정헌법은 45년 동안 미국인들이 낙태에 자금을 대는 것으로부터 보호해왔습니다. 하이드 수정헌법은 지금까지 240만 명이 넘는 아이들의 생명을 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의 힘있는 의원들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거의 반세기 동안 지지해 온 이 법을 없애기를 원합니다. 교황 프란치스코는 "인류의 미래는 근본적으로 사람들의 손에 달려 있고 조직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6월 첫째 주로 예정된 USCCB의 전국적인 노력에 대한 우리 교구의 대응에 교구민들을 초대합니다. 주요 목표는 수백만의 가톨릭 신자들이 NoTaxpayerAbortion.com에 서명하는 것입니다. 세금으로 낙태하는 것을 막으십시오. NoTaxpayerAbortion.com

기타

-성당안에서는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반드시 마스크 착용합니다. 마스크를 깜빡 잊고 오신 분은 입구에 비치된 마스크를 사용하면 됩니다.(무료)

-열이 나거나 몸이 좋지 않다고 느끼거나 또는 의사의 권유가 있으면 집에 머무르시며 건강 회복하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당 재정에 본당신부는 관여하지 않으니 재정은 평의회장께 문의 바랍니다.

-성당에 들어오시면 앞자리부터 채워 앉아주십시오. 유아가 있는 가정도 앞자리에 앉아도 됩니다. 제대와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는 것이 아닌 제대 가까이 오시어 미사 참례하시기 바랍니다.

전례 성가

	입 당	파 건
금 주	1	31
차 주	163	200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 주	김주연 세실리아	김태중 예레미아	김시연 엘리사벳
차 주	김명은 안젤라	감영진 라파엘	한춘희 라파엘라

